



즉시 배포용: 2024년 7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기관간 화재 안전 실무단의 권고안에 따라 소방법 초안 마련

*법 초안에는 조정 및 비상 준비 개선을 위한 개정이 포함*

*배터리 저장 역량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 중 하나*

*실무단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조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소방법(New York Fire Code)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지사의 기관간 화재 안전 실무단(Interagency Fire Safety Working Group) 권고안에 따른 개정 초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초안에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조정, 안전 및 비상 대응 준비 상태 개선을 위한 개정과 내용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권고안은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BESS 역량 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저장은 여기 뉴욕에서 친환경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제퍼슨, 오렌지, 서퍽 카운티 화재 사고 발생 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안정성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실무단(Working Group)을 소집한 바 있습니다. 실무단은 독립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설 안전 및 소방 기준을 확인하고 소방법 권고 보고서(Fire Code Recommendations Report)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4년 9월 24일까지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Notice of Rule in Development 절차를 통해 개진할 수 있습니다. [The Rule in Development](#) 확인.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BESS 설치에 대해 업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피어 리뷰 의무화.
- BESS 화재 발생 시 BESS 설치 관련 지식이 있는 적격 인력 또는 대표자를 15분 내에 배치하여 네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지역 비상 대응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 BESS 유닛 외에도 펜스 또는 보안 배리어, 현장 지도, BESS 인클로저, 관련 장비 등을 포함하는 안전 표지 의무 설치 규정 확대 적용.
- 전력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BESS 프로젝트 전체가 소방법을 준수하도록 과거의 소방법 면제 조항 제거.
- 모든 BESS 시설이 비상 대응 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ERP)에 따라 장비를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을 지역 소방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프로젝트 및 BESS 관련 위험 요소, ERP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
- 중앙 서비스 알람 시스템과 더불어 화재 탐지 시스템 관리를 위해 BESS 설치를 진행하여 화재 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적절한 내용을 지역 소방서에 전달하는 내용 포함.
- 업계의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 BESS 설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항을 소방법에 신설하여 안전과 규정 준수 확보.

실무단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개발 및 전기화와 관련된 모든 기존 코드 및 테스트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국립 연구소 및 기타 국가 주요 주제 전문가와 협력하여 소방법 권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24년 초 NYSERDA는 특정 주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후, 실무단이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실무단](#) 최종 권고안 확인.

**Walter T. Mosley**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설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새롭고 중요한 기술 도입에 따라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실무단이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초안은 향후 이러한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HSES는 실무단의 권고안과 소방법 개정과 추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청정 에너지 미래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 망의 탄력성과 효율이 높아지는 한편, 뉴욕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NYSERDA는 뉴욕주 주무부가 주지사의 기관간 화재 안전 실무단의 권고를 도입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을 개선하고 모범 관행을 표준화하여 화재 안전 및 정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문에서 뉴욕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임시 커미셔너인 Sean Ma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비상 계획, 정보 공유, 기타 대응책 권고안을 통해 뉴욕은 지역사회가 향후 화재에 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은 뉴욕주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평가와 개정은 운영과 공공 안전 모두에서 개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 최고경영자인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 안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부는 배터리 저장 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일순위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저장 센터의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를 목표로 최소 35%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and-Invest program (NYCI)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1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28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400곳,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30곳 이상,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500곳 이상,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